

# 국내 가장자산 관련 中企, “해외업체 비해 역차별 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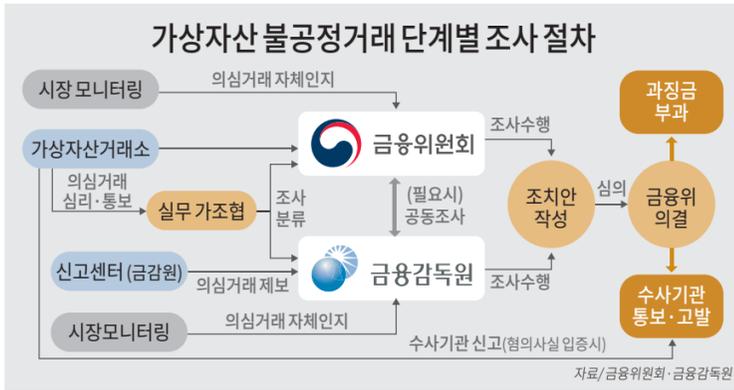
블록체인조합 “외국계 불법영업” 가장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 국내 가장자산시장, 6월말 약 55조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조사 가동

비트코인, 알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장자산에 대한 가장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장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인 국내 가장자산사업자(VASP)들이 해외 관련 회사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강력하게 호소하고 나섰다.

상당수의 국내 VASP가 하반기부터 사업권 만료기간이 본격 도래하는 가운데 갱신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은 영업 중단과 폐업이 불가피하다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특히 국내 사정이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공격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불법 해외거래소들이 시장을 잠식하고, 자칫 그 피해가 국내 관련 업체와 자산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자국 내 거래소의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에는 박수를 보낸다”면서 “그러나 법 테두리 밖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여전히 한국에서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가장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맞춰 이들의 불법 영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더욱 실효성있는 조치를 내놔야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에는 VASP 중 하나인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커스터디) 관련 중소기업 50여 곳이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의료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 벤처캐피탈(VC) 등도 포함돼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약 55조 원까지 성장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 대비 1.7%, 국내 주식시장 대비 2.1% 수

준이다. 실거래자수는 2021년 말 558만 명에서 지난해말엔 645만명까지 늘었다. 업계에선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가상자산 선물시장은 한국이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이준복 이사장은 “경영의 부침을 받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달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취득과 VASP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해외거래소에 대한 조치는 떨어지고 이들의 영업 활동은 점점 더 과감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불법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10여 곳으로 알려져 있다. M사, L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문으로 된 거래플랫폼을 운영하고 거래소가 아닌 투자회사 형식의 법인체를 앞세워 자사 거래소 영업, 마케팅 활동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한 토큰 발행회사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해외거래소 L사가 대표적이다. 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에 따르면 L사의 한국대표는 선물 상장 등을 약속했다 상장이 무산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런데 L사는 이 한국대표와의 관계를 부정하며 개인적 일탈로 무마하는 분위기다.

또 해외 B사는 자사 플랫폼내 수탁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장에 유리하다는 식의 영업으로 국내 프로젝트 상장을 유인,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가장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가장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본격 가동한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 조직 신설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사항 구체화를 위한 하위법규 마련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 구축 지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SKT 이통사 첫 ‘기내 와이파이’

앞으로 항공기 내에서 간편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된다.

SK텔레콤이 국내 이동통신사 최초로 비행 중인 항공기 내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T 기내 와이파이’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T 기내 와이파이’는 항공사를 거치지 않고 SK텔레콤의 T로밍 홈페이지 및 공항 로밍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간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는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 각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와이파이 사용 가능 항공편을 확인하고 결제하는 식으로 제공됐으며, 항공사에 따라 탑승 후에만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SK텔레콤은 SK텔링크, 글로벌 항공사 및 글로벌 위성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고객이 한 곳에서 기내 와이파이 이용 가능 항공편 확인과 서비스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T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준비했다.

회사는 루프트한자, 일본항공, 중국동방항공, 에어캐나다, 카타르항공, 에티오피아항공 등 6개 항공사와 협력했으며, 향후 협력 항공사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삼성-SK하이닉스, 차세대 AI 메모리 솔루션 선배

미국 ‘FMS 2024’ 참가 AI 위한 고용량 낸드 기술 제품 소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달 6~8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서 열리는 글로벌 반도체 행사 ‘FMS(Future of Memory and Storage) 2024’에 참가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두 업체는 올해 기조연설을 맡아 다양한 AI 메모리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행사 첫날 ‘AI 혁명: 메모리 및 스토리지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맡았다. 짐 엘리엇 미주총괄 부사장, 오화석 솔루션 제품엔지니어링팀 부사장, 송택상 메모리사업부 D램 솔루션팀 상무가 참여한다.

SK하이닉스도 같은 날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아직 연설자는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행사에서는 최정달 낸드 개발담당 부사장과 안현 솔루션개발담당 부사장이 ‘멀티모달 AI(Multimodal AI) 시대를 구현하는 업계 최고의 4D 낸드 기술 및 솔루션’을 주제로 연설했다.

두 회사는 올해도 첨단 낸드 플래시 메모리 기술을 소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최근 양산한 9세대(280단) 낸드를 기술을 소개한다. 낸드는 고용량 제품을 만들기 위해, 셀(데이터 저장단위)을 수직으로 쌓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이 제품은 원가 경쟁에서 유리한 ‘더블 스택(Double Stack

k)’ 구조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 단수 제품으로 성능과 전력 효율을 모두 개선했다.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 ‘QLC(Quad Level Cell) 9세대 V낸드’도 양산할 예정이다. QLC는 셀 하나에 4비트를 저장해, 3비트를 저장하는 기존 TLC보다 데이터 저장량이 많다. 또 온디바이스 AI 시대에 최적화된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PM9E1’도 공개한다.

SK하이닉스의 신기술 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SK하이닉스는 이 행사를 통해 321단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 중인 사실을 깜짝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행사에서 낸드 개발 경과를 추가로 발표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이 제품은 이전 세대인 238단 512Gb(기가비트) 대비 생산성이 59% 높아진다.

이와 함께 고용량 제품을 만드는 데 유리한 QLC 낸드 제품 개발 계획도 소개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현재 60TB eSSD의 출시를 계획 중이다.

FMS는 매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서 열리는 낸드 업계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로, 혁신적인 신제품과 최신 기술을 공유하는 장이다.

올해는 낸드를 포함해 D램 등 전 메모리로 규모를 확장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이중데이터속도) 등 최신 D램 제품도 전시될 전망이다.

/김서현 기자 seoh@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라이프집 팝업에 마련된 너겟 부스에서 너겟과 스텝 폰 박스를 소개하는 모습. /LGU+

## LGU+ “디지털 디톡스 하세요”

LG유플러스는 자사 통신 플랫폼 ‘너겟’이 MZ세대 고객들의 올바른 디지털 습관을 권장하는 브랜드 캠페인 ‘물입의 순간에 접속해’를 진행한다. 캠페인 취지에 맞춰 스마트폰 데이터를 차단하는 굿즈를 선물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너겟은 고객에게 초개인화된 통신 경험을 제공하는 선납형 요금 기반의 통신 플랫폼이다. 2만원대 5G 요금제인 ‘너겟 5G 6G 26(월 2만6000원, 데이터 6GB)’를 비롯해 18종의 5G 요금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신규 캠페인인 ‘물입의 순간에 접속해’는 매 순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MZ세대 고객들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자신의 일상에 맞춰 스마트폰과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스마트폰과의존을 방지한다는 목표다. /구남영 기자

## 이노비즈협회, IR행사로 12억 투자 결실

‘2024 INNO-Wave’ 개최

이노비즈협회가 우수 이노비즈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IR 행사에서 인체장기칩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스페로가 12억원의 투자 유치 결실을 맺었다.

17일 이노비즈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 이노비즈협회와 벤처캐피탈(VC)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해 실질적인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IR 행사인 ‘2024 INNO-Wave’를 작년 9월 이후

올해 두 번째로 진행했다.

당시 협회는 우수 기술을 보유한(예비)이노비즈기업 5개사를 선정해 VC 및 기술지주사, 증권사와 함께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바이오스페로가 기술보증기금 벤처투자센터로부터 투자 유체에 성공했다.

인체장기칩은 사람의 장기 또는 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체외 환경의 마이크로 칩 위에 구현하는 기술이다.

/김승호 기자

## 중진공, 중소기업 CBAM 대응 지원

수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제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전략’ 이력서 콘텐츠를 18일 공개한다.

17일 중진공에 따르면 EU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일

종의 관세 제도다.

2025년까지는 전환기간으로 탄소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지만, 2026년부터 배출량 검증 및 CBAM 인증서 제출의무가 추가돼 기업들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콘텐츠는 ▲CBAM 개요 및 주요 현황 ▲CBAM 대응 사례 소개 ▲CBAM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CBAM 템플릿 작성방법 등 총 4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김승호 기자